

또래지지가 청소년의品行행동과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

: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ffects of Peer Supports on Conduct Behavior and Withdrawal of Adolescence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s

이정숙(Jung Sook Lee), 송화진(Hwa Jin Song)*
Department of Child Psychotherapy,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peer support on conduct behavior and withdrawal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 The subjects included 461 students(boys 51%, girls 49%) from the 1st to 3rd grades of middle school in Seoul. Conduct behavior and withdrawal was measured by the Korean Youth Self Report and the Conners-Wells'-Adolescent Self Report Scales. Negative automatic thoughts were measured by the Korean Children Youth Automatic Thoughts Scale. Using Amos 2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The finding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that peer support had an impact on conduct behavior and withdrawal. Peer support contributed to a reduction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s. Negative automatic thoughts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peer support and withdrawal or conduct. We suggest that peer support affects conduct behavior and withdrawal through negative automatic thought. We also found gender differences; compared with girls, boys received less support from peers. They also had lower levels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s and withdrawal than girls. The further study should be considered to provide more correlation factors of peer support.

▲주제어(Key Words) : 또래지지(peers supports), 부정적 자동적 사고(negative automatic thoughts), 위축(withdrawal),品行행동(conduct behavior)

I. 서론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2차 분리화가 보여지는 시기로 유아동기의 안정된 자기인식과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습득의 영향을 받는다. 부모와의 관계를 안전기지로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학령기에 이르면 또래관계가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중학교 시기는 친구들과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평

균시간이 부모와의 시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 청소년기에 최고조에 이른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친구와의 접촉은 한 개인의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S. Asher & J. Parker, 1989). 또래관계는 근본적으로 수평적인 관계로 청소년은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감을 형성하고 심리·사회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W. Hartup, 1989).

또래관계 문제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에 큰 영향력을 미칠뿐 아니라 학교부적응과 여러 행동적이고 임상적인 문

* Corresponding Author : Hwa Jin Song, Department of Child Psychotherapy, Hanyang University, Wangsimri-ro, Seongdong-gu, Seoul 133-791, Korea, Tel: +82-10-2220-0618, E-mail: multivalent@hanmail.net

제들의 원인이 되어진다(J. Parker & S. Asher, 1987; C. Ulmann, 1957). 초등학교 시기의 또래거부 경험은 품행장애의 조기출현의 위험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M. Shari, D. John, M. Anne, & B. Karen, 2002). 또한 발달단계에 따른 성장곡선분석에서 아동기 또래거부는 청소년들의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있었다(J. Coie, R. Terry, Lenox, J. Lochman, & C. Hyman, 1995). K. Kim and K. Kim(2005)의 연구에서 또래괴롭힘이 사회적인 위축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주관적인 평가와 내용이 포함된 부정적인 내용의 독백과 대화와 같은 내면적 언어로 또래관계에서의 소외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며(Y. Lee & J. Lim, 2011) 청소년 전기에서 중후기로 갈수록 높아진다. 또래애착은 부모애착에 비해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더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었고(J. Kim, 2010) 친구들과의 신뢰와 의사소통에서의 소외감을 적게 느끼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J. Kim, 2008). 외현화 문제행동인 품행장애는 청소년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이나 우울 비행아 등의 공존병리군에서 흔히 보여지고 일반적인 비행행위에서 심각한 양극성장애나 반사회적 인격장애 범주까지 포괄되어진다. 품행장애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애착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정상적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H. Kaplan & B. Sadock, 1988). 낮은 자존감과 다른 사람의 감정, 바람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냉담한 행동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T. Moffitt, 1990). 또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수준이 높을수록 비행행동에 허용적이며 비행경험의 빈도가 높은 등 정신병리와의 관련성이 높아(P. Leung & M. Wong, 1998) 주의를 요한다. 위축은 공격적인 행동에 비해 수줍음이나 소극성 정도의 문제로 보여져 간과되기 쉬우나(J. Lee, 2009) 비행아에 비해서도 또래관계에서 소외되어 있고 지속된다면 보다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다.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행동인 사회적 위축은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자기이해, 높은 우울, 불안과 관련이 높아 대인관계, 문제행동, 또래거부 등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성인기에서 사회적 고립 및 회피성 정신장애, 학업실패, 실직, 자살 시도, 범죄행동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W. Oh., K. Rubin, J. Bowker, C. LaForce, L. Krasnor, & B. Laursen, 2008).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잘 의식되지 않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며 촉발된 사건 또는 환경적 자극에 의해 의식되지 않은채 사고작용의 정서적 결과만으로 인식된다(A. Beck, 1988). 자동적 사고는 애착과 연관된 작동기제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감

정과 연관되어 있는 사고의 왜곡과 자기에 관한 정보, 미래에 대한 기대나 예측, 사건들의 원인에 대한 귀인이나 추론과 관련된 자기 인지도식은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M. Weishaar, 2007).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도식은 학령기와 성인기를 거치며 주요한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형, 확장되고 또래관계 역시 영향을 미친다. 인지적 왜곡은 과민화된 반응으로 볼수 있으나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는다면 자동화되어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사회불안 인지는 위축에 적대적 인지는 품행장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간적으로 불안인지는 미래에 중심을 두며 불안정적이고 위협에 집중한다. 반면 우울인지는 과거가 중심으로 안정된 상태이고 상실과 실패가 주를 이룬다(K. Ronan & P. Kendall, 1997).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내재화 행동 문제에 47%, 외현화 행동문제에 26%로 설명력을 보였고 내재화 증상에 대한 특수화된 관련성 뿐 아니라 비행의 공존집단, 품행행동과 관련해 더 많이 나타났다(Y. Ha, 2006). 또한 스트레스에서의 변이와 정서행동문제들 사이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었다(F. Eirini & P. Constantina, 2014). 또래거부 등의 부적자극은 우울과 사회불안 인지,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인지와 같은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증가시킴으로 문제행동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는 문제행동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많은 연구의 주제가 되어왔다(S. Cohen & H. Hoberman, 1893; E. Dubow & J. Tisak, 1989; J. Varni, L. Rubenfeld, D. Talbot, & Y. Setoguchi, 1989). A. Cauce, C. Mason, N. Gonzales, and Y. Hiraga(1994)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또래지지에 대한 민감성이 상승되는 시기로 또래관계와 사회적 위축의 관계에서 자동적 사고는 유의미한 매개변인으로 있었다(J. Lee, 2009). 또한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공격성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는데(J. Park., & H. Choi, 2005) 공격성은 품행문제를 선행하는 요인으로 있다. 그리고 남녀 청소년에서 또래애착과 자동적 사고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Y. Lee., & H. Lim, 2011, J. Kim, 2010). 또래애착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와 외현화문제, 총 문제행동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H. Hyun, H. Doh, 2008; H. Kim, 2005). S. Robert(2008)는 집단괴롭힘은 또래집단의 지위, 사회적 지지와 우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았고 또래집단을 일반아, 인기아, 혼합형, 무시아, 거부아로 나누었다. J. Coie, K. Dodge and Coppotelli(1982)의 또래지위에 따른 행동특성 연구에서 거부아는 파괴적 행동특성을 보였고 무시아는 위축성향이 강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기 또래관계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 문제 행동간 관련성이 높고 또래애착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은 문제행동 하위범주 전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청소년의 위축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문제와 학교폭력, 비행 등의 품행행동 문제는 청소년의 사회성 문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병의원이나 상담실에 의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또래지지가 내재화 문제행동인 위축과 외현화 문제행동인 품행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부정적 자동사고의 직간접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적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지지가 위축과 품행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고자 하였다. 그리고 또래지지에 있어 성별차가 보고되고 있고(S. Harter, 1985)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또래지지가 보여졌다(C. Bokhorst, S. Sumter, & P. Westenberg, 2010). 또래관계 문제의 위험수준의 분석결과에서도 남학생이 고위험군과 잠재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높아 심각한 정도의 또래관계 문제를 보다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여학생에 있어 또래관계에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은 남학생에 비해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됨이 보고되었고(H. Lee, & H. kim, 2011) 반면 비행행동을 하는 여학생에 있어서는 더 심각한 정서 행동적 문제가 지속됨을 보여주었다(S. Kataoka, B. Zima, D. Dupre, K. Moreno, X. Yang & J. McCracken, 2001). 그러나 성별조절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들에서 일관적인 성별차를 보고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모형에서 성별간 경로 계수의 차이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래지지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매우 높았는데 스트레스 반응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보호기전이나 다면적인 생리반응이 지나치게 강렬하거나 오래 지속될 때 이는 신체적 증상을 일으키고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한다(W. Choi, 2006). 성별, 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지지 요인 중에서 또래지지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R. Misra, M. Crist, & C. Burant, 2003). 생애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또래지지가 완충시키고(A. Cauce, C. Mason, N. Gonzales, & Y. Hiraga, 1994) 많은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와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개인의 성격과 같은 공변량을 조절하였을 때도 결과가 동일하여 개인내적 특성의 영향력과 독립적으로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M. Argyle, M. Martin & L. Luo, 1994; E. Diener & E. Seligman, 2002). 위축과 관련성이 높은 우울과 품행행동문제가 포함되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의

정서적 환경과 비행친구와의 교류 등의 또래 환경요인의 개선이 우선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K. Oh., E. Kim., R. D., & Y. Eoh, 2005). 사회적 지원은 부모, 친구, 교사로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인 지지를 포함하고(S. Park, 2000; J. Lee, 2011)사회적지지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불안, 우울, 수면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M. Dumont & M. Provost, 1999) R. Minna, L. Tiina, M. Mauri, P. Mirhami and K. Rittakerttu(2010)은 낮은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우울과 반사회적 행동에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또래지지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갈등, 가족유대감과 우울과 불안, 위축행동, 공격성과의 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 Kim, 2013). 그리고 품행행동과 관련된 폭력 가해자, 피해자 및 가해·피해자그룹에서 보호요인으로 다변량 분석에서 피해·가해그룹들과 또래지지 사이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고 역경에 부딪혔을 때 심리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K. Melissa & L. Dorothy, 2007). 몇 명의 좋은 친구들은 또래거부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요인이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부당한 아동들의 외로움은 적어도 한명의 친구와 높은 질의 우정을 나누고 있다면 감소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완충효과는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에서 안전감을 획득하고 친밀한 친구를 통해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생리적으로도 위협적인 상태가 감소되고 조절이 강화되어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하기 때문이다(P. Ellen, R. Marianne, H. Antonius, & W. Carolina, 2011).

품행장애는 아동, 청소년의 6-16%를 차지할 정도로 흔히 진단되어지고(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있는데 비행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과 연관된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많고 비행과 관련된 정신병리에 관한 연구는 일부에 그치고 있다(V. Robert, 2003). 정신장애분류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DSM-5)에서 품행장애는 “파괴적, 충동통제 및 품행장애”라는 새로운 범주로 옮겨가 나뉘어있던 진단명들이 호발연령이나 원인, 기전과는 관계없이 품행장애, 반사회장애가 도벽, 방화벽기타 충동장애가 함께 묶이게 되었다(S. Jung, 2013). 한편 품행행동을 정신과적 장애라기보다는 또래관계로부터의 압박, 부모와 가정에서의 부정적 영향, 사회문화적 불이익에 대한 반응으로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배경 등으로 개념화함으로써 품행장애의 문제가 사회적 시각으로 이해되기도 하여(H. Jhin, K. Kim, & J. Lee, 1998) 정신병리와의 관련성과 일반적으로 청소년 비행과 통용되는 개념(K. Kim & H. Lee, 2002)이 혼용되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괄하여 총칭하였다. 외현화 문제행동 중 품행장애는 가장 파괴적이며

타인에 대한 공격성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며 근래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자살 등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발전할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고 흡연 등의 물질남용, 양극성 장애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행동문제로 예방적인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청소년의 상호우의의 정도는 또래관계에 특히 중요하며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이 친구가 꼭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괴롭힘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우정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공격성이 있는 그룹과 위축그룹 비교시 위축 하위집단에서 고독감과 사회적 불만이 보다 높았다(Jeffrey, G. Parker, R. Steven, & Asher, 1993). D. Perry, S. Kusel, and L. Perry(1988)는 집단 괴롭힘 피해를 입은 아동이 갖는 공격성과 또래 거부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공격성과 피해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음을 발견하였고, 집단 괴롭힘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가 가장 공격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같은 맥락으로 D. Olweus(1997)는 또래 폭력의 피해자를 수동적 피해자와 공격적 피해자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중 공격적 피해자는 가해자와 비슷한 수준의 공격성을 갖고 있으며, 공격받았을 때 반격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 Dodge and D. Somberg(1987)도 따돌림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은 또래관계에서 문제행동을 보임으로써 자신을 의도적으로 해치려는 것으로 지각된 또래의 행위에 대해 방어나 보복을 한다고 밝히고 있어 내외현화 행동문제간의 공변과 상호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 중고등학생의 37.5%가 지난 12개월 동안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꼈던 적이 있고, 19.1%는 지난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는 청소년의 10.4%가 인터넷 중독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의 인터넷 중독률인 6.8%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그뿐 아니라 한국 10~30대의 가장 높은 사망원인은 자살이고, 한국 성인의 자살률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11.4%에서는 흡연 경험이 있으며 19.4%에서 음주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울과 인터넷 중독, 자살시도, 흡연과 음주, 폭력 등은 품행장애와 위축아 모두에서 보여질 수 있는 건강행태로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래와 교사의 지지는 청소년기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연관을 설명할 수 있는 매개 변인인 자존감에(K. Feng & Y. Xuqun, 2013) 오랜시간 동안 정적 영향력이 있었다(K. Melissa & L. Dorothy, 2007). 청소년 초기의 우정은

성인 초기의 자아 존중감을 예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지표로 자아개념과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도 핵심적 역할을 한다. 청소년기는 부모의 지지가 여전히 주요한 요인으로 영향력을 미치나 학령기 이후의 또래관계는 청소년 중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비중이 증가하므로 또래관계에서의 거부나 무시는 학교 부적응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고 심각한 정서행동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비행행동의 패턴 중에서 청소년기의 일시적인 행동이 아닌 성인기까지 확장되는 경우 이는 청소년기 정신병리 증상들과 보다 연관성이 높을 수 있고 성인기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기에 적절한 개입이 요구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와 연관된 변인들의 관련성을 정리해 보면 또래지지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정서행동문제 모두에 보호요인으로 있고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정서행동문제에 직간접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또래지지가 품행행동에 직접적 또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영향을 주는가?
- <연구문제 2> 또래지지가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위축에 영향을 주는가?
- <연구문제 3> 또래지지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 품행행동 및 위축의 관계에서 남녀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13년 8월 서울 1개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전체 475부 중 1학년이 160명(33.6), 중2학년이 154명(32.4), 중3학년이 161명(34)였다. 이중 기입오류로 주요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14부는 제외되고 총 46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남학생이 235명 여학생이 226명이었다. 모와 부의 나이는 41세에서 45세가 가장 많았고 모가 50.1% 부가 43.9%로 학력은 대졸이 부(72.7), 모(67.4)로 가장 많았다. 부의 직업은 사무행정직이 35.7%로 가장 많았다. 모는 47.7%가 주부로 직업군에서는 역시 사무행정직이 13.4%로 가장 많았다. 함께 사는 가족수는 4인 가족이 63.6%로 가장 많았고 5인 가족이 20.5%였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61.2%가 중간으로 평가하였고 학업성적은 중간과 중하가 62.1%였다. 형제순위를 살펴보면 첫

째아이 46.1%, 중간 아이 9.8%, 막내가 37.7%, 그리고 외동이 6.4%였다.

2. 측정도구

1) 또래지지

사회적 지지 검사는 P. Nolten(1994)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M. Lee(2001)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사회적 지지 척도는 하위영역을 부모, 교사, 친구로 나누고 각 하위영역별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를 내용으로 하여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5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원과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지지적이며 만족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영역 또래지지를 사용하였고 총 9문항으로 Cronbach's α 는 .89였다.

2) 청소년의 행동문제척도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T. Achenbach(1991)가 개발하고 K. OH, H. Lee, K. Hong and Y. Ha(1998)가 번안,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자기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Report; K-YSR)의 행동문제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축 소척도를 사용하였고 내재화 문제 전체신뢰도는 Cronbach' α 는 .92이었다.

3) 부정적 자동적 사고

본 연구에서는 C. Schniering and R. Rapee가 2002년에 개발한 아동기 자동적 사고척도(Children's Automatic Thought Scale: CATS)를 K. Moon, K. Oh and H. Moon(2002)이 번안하여 재구성한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자동적 사고척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사용하였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우울인지(10문항), 적대적인지(5문항), 사회불안인지(10), 신체적 위협(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신뢰도는 Cronbach' α =.96이다.

4) 품행장애

Conners Rating Scales-Revised(CRS-R)복합검사품목(Conners, 1997) 중 하나로 G. Bahn, M. Shin, S. Cho, and K. Hong(2001)에 의해 국내 타당화된 청소년용 단축형 자기보고식 선별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하위영역 품행장애를 사용하였고 전체신뢰도는 Cronbach' α = .88였다.

3. 분석방법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설문대상자에 대한 기술 통계와 성별에 따른 독립 t-test를 하였고 pearson 상관분석을 하였고 AMOS 20.0을 사용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는 또래지지와 품행행동, 또래지지와 위축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연구모형으로 또래지지가 품행장애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부분매개를 하는 경로와 또래지지와 위축과의 관계에서 완전매개를 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Figure 1> 참조). 두 번째, 대안모형으로 또래지지와 품행행동, 또래지지와 위축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부분매개를 하는 경로를 설정 하였다(<Figure 2> 참조). 세 번째, 또래지지와 품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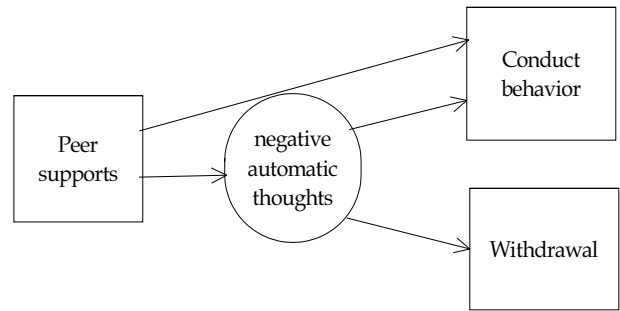


Figure 1. Hypothetical Research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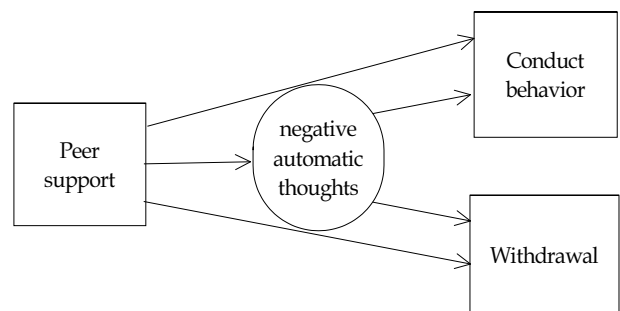


Figure 2. Hypothetical Alternative Model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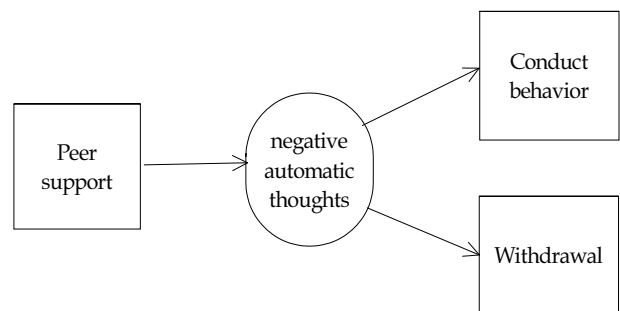


Figure 3. Hypothetical Alternative Model 2

행동, 또래지지와 위축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완전매개를 하는 경로로 설정 하였다(<Figure 3> 참조).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청소년의 또래지지, 부정적 자동적 사고, 위축, 품행장애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전에 성별 차이를 알기위해 집단평균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또래지지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 위축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품행행동에서는 두 그룹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모형 적용시 성별차를 구분한 그룹간 비교는 아래와 같다(<Table 1> 참조).

2. 상관관계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래지지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위축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상관률은 여학생이 보다 컸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품행행동과 남녀학생 모두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상관률은 여학생이 보다 크게 나타났다. 위축과 품행행동은 남녀 모두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이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관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3. 구조모형분석

이 연구에서 나타난 또래지지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 품행행동 및 위축의 구조모형에 대한 전체 적합도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Main Variables

	M(SD)		t
	Male(235)	Female(226)	
Peers support	32.7(7.3)	35.2(6.8)	-3.7***
Negative automatic thought	68.0(24.4)	74.1(23.9)	-2.7**
Conduct behavior	10.9(7.9)	9.7(6.3)	1.7
Withdrawal	2.4(2.4)	3.0(2.3)	-3.0**

** $p < .01$, *** $p < .00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Male				Female			
	1	2	3	4	1	2	3	4
1. Peers support	1	-.26**	-.20**	-.23**	1	-.35**	-.31**	-.24**
2. Negative automatic thought		1	.53*	.44**		1	.54**	.52**
3. Withdrawal			1	.34**			1	.42**
4. Conduct behavior				1				1

* $p < .05$, ** $p < .01$

Table 3. Fit index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χ^2	df	IFI	TLI	CFI	RMSEA
Research model	40.22	13	.975	.946	.975	.066
Alternative model 1	39.47	12	.975	.941	.975	.069
Alternative model 2	45.06	14	.972	.943	.971	.068

연구모형과 대안모형1 Δx^2 차이가 1일 때 0.75로 두 모형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Delta TII=5$, $\Delta RMSEA=-3$ 으로 적합도가 보다 우수하였고 자유도가 큰 연구모형을 채택하였다. 대안모형2는 연구모형에 내재된 모형으로 Δx^2 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으며 Δx^2 의 차이가 5.83, $\Delta df=1$ 로 유의미하여 자유도가 더 작고 $\Delta TII=3$, $\Delta RMSEA=-2$ 로 우수한 연구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친구지지와 품행장애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부분 매개하고 친구지지가 위축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완전 매개하는 모형이 지지되었다 (<Table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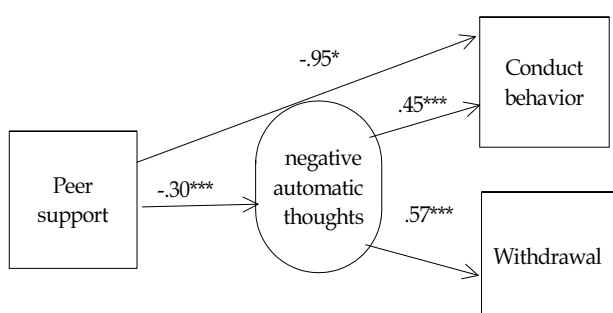


Figure 4. Pathl Coefficient of Research Model

1) 매개효과 검증
 앞서 분석된 구조모형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간접 경로에서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sobel test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검증결과, 친구지지와 품행장애 및 위축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2) 남녀집단간 경로계수의 차이검증
 성별이 또래지지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 품행행동 및 위축간의 관계에서 남녀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 요인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하고 각 집단의 요인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제약모형으로 하여, 두 모형간의 적합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Table 6>에서 기저모형과 제약모형의 χ^2 값의 차이는 6.4, $\Delta df=3$ 으로 유의하지 않아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었고 구조 동일성 검증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다. 집단간의 경로계수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구조 동일성 검증은 각 집단의 경로계수 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한 기저모형과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제약모형을 비교로 측정동일성 제약

Table 4.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of Paths in the Mediating Model

Path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t
Peers support → Negative automatic thought	-.27	-.30	.044	-6.16***
Peers support → Conduct behavior	-.09	-.95	.041	-2.21*
Negative automatic thought → Conduct behavior	.47	.45	.050	9.36***
Negative automatic thought → Withdrawal	.19	.57	.016	12.3***

*p < .05, ***p < .001

Table 5.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 and Conduct Disorder or Withdrawal

Path	Indirect effect	Sobel test(Z)
Peers support → Negative automatic thought → Conduct Behavior	-.13	-2.9*
Peers support → Negative automatic thought → Withdrawal	-.05	-5.0*

*p < .05

Table 6. Fit Index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χ^2	df	IFI	TLI	CFI	RMSEA
Baseline model	48.5	26	.979	.954	.979	.043
Measurement invariance	54.9	29	.976	.952	.975	.044

Table 7.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of Paths in the Mediating Model

Group	Path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t
Male	Peers support → Automatic thought	-.42	-.44	.062	-67***
	Peers support → Conduct behavior	-.12	-1.1	0.72	-1.6
	Negative automatic thought → Conduct behavior	.51	.45	.082	5.5***
	Negative automatic thought → Withdrawal	.18	.54	.022	8.4***
Female	Peers support → Automatic thought	-.38	-.38	.067	-5.6***
	Peers support → Conduct behavior	-.03	-.03	.058	-.51
	Negative automatic thought → Conduct behavior	.51	.55	.066	7.8***
	Negative automatic thought → Withdrawal	.21	.59	.022	9.3***

*** $p < .001$

Table 8. Fit Index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χ^2	df	IFI	TLI	CFI	RMSEA
Baseline model	54.9	29	.976	.952	.975	.044
Structural invariance	56.6	33	.978	.962	.978	.039

Table 9. Nested Model Comparisons

Path	χ^2	df	TLI
Peers support → Conduct behavior	.79	3	-.008
Peers support → Negative automatic thought	1.52	3	-.006
Negative automatic thought → Conduct behavior	1.34	3	-.007
Negative automatic thought → Withdrawal	1.10	3	-.007

모형과 집단 간 등가제약모형의 적합도 지수 차이는 $\Delta \chi^2=1.7$, $df=4$, $\Delta TLI=10$, $\Delta RMSEA= .05$ 로 집단 간 등가제약이 성립하였고<Table 8>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이 모형에서의 세부 경로계수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9> 참조).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1-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우관계에서의 지지가 품행행동과 위축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이 사이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고 성별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집단에서 또래지지가 품행행동에 미치는 직

접적 영향력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 Beck and G. Emory(1985)와 여러 연구결과들을(T. Oei, E. Hibberd & O'Brien, 2005; S. Kwon & T. Oei, 2007) 종합해 볼 때 부정적 경험과 병리적 증상을 매개하는 자동적 사고의 효과가 보여지고 친밀한 몇 명의 또래관계는 또래거부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요인이 되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Ellen et al., 2011)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래관계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친밀한 우정의 긍정적인 질은 정신 건강 기능의 보호로 제공될 수 있음이 제안되고 있다(A. La Greca & N. Lopez, 1988; E. Vernberg, D. Abwender, K. Ewell, & S. Beery, 1992).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또래 관계에서의 문제는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며 비

행, 우울 등 문제행동과 부적응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 Kupersmidt & J. Coie, 1990). 자신이 또래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상황적 곤란을 자신의 안정적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귀인하는 성향이 높고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아동 역시 사회적 실패를 내적이고 안정적인 요인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어(S. Graham & J. Juvonen, 1998) 또래관계의 문제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우정의 질에 대한 평가는 비행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 보다 교우관계 문제가 많이 보여진다는 보고와 또래애착에서 차이가 없음이 밝혀지는 등 일관적이지 않다(M. Claes & R. Simard, 1992; M. Gillmore, J. Hawkins, L. Day & R. Catalano, 1992). M. Claes and R. Simard(1992)는 이들의 우정에서 고립, 거부, 조롱의 감정을 포함하여 가장 친한 친구와 높은 수준의 갈등을 보고하였고 P. Giordano, S. Cernkovich and M. Pugh(1986)도 비행집단은 그들의 친구들에 의해 압박을 더 느끼고 친구들에게도 압박을 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여러 명의 또래 관계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고 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우정이 자신이 속해있는 비행집단 내 규율과 의리를 지키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상황 등에 국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비행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비행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았고 결과적으로 비행친구의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는 비행행동의 유의미한 감소가 보여지지 않았고 이는 전체집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론하고 있다(D. Yang & Y. Lim, 1998).

이 연구에서 초기 연구모형에서 또래지지는 품행행동에 직접적 영향력이 유의미하였으나 성별간 경로계수 차이는 또래지지가 품행행동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아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에서의 복잡한 교우관계 양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또래지지가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완화하는 것을 통하여 품행행동의 감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또래지지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내현화 문제행동인 위축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위축행동에 직접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고(J. Lee, 2009) 이 연구에서 또래지지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완충 역할을 하였다. 자동적 사고는 부정적 생활사건과 역기능적 신념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되고 문제행동과 연결되어진다.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은 내적표상에 영향을 주고 이후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J. Bowlby, 1973; S. Freud, 1958; O. Kernberg, 1975; M.

Klein, 1932) 또래지지가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감소시키고 위축행동에도 간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위축은 개인의 소극성 수준의 문제로 쉽게 간과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소외와 단절은 향후 보다 심각한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고 교우관계가 중요해지는 청소년기에 또래소외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자연히 증가시키고 자기유능감에 손상을 끼치며 외로움과 낮은 자존감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며 우울해지기 쉽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품행행동보다 위축에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외현화문제행동보다 내재화 문제행동과 보다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

셋째, 또래지지가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완화시키는 영향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여학생에 있어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품행장애와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나 모형의 동일성 제약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C. Bokhorst et al.(2010)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급우들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는 것을 보고하고 있고 다른 연구들에서 가까운 또래지지에 있어 성별차이를 언급되고 있어(S. Harter, 1985) 동일하였다. 그러나 여학생은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위축에 있어서도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문제를 유의하여 상대적으로 경로계수에서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체 연구모형에서는 또래지지가 품행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유의하였으나 남녀집단을 구분한 모형에서의 해당 경로는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남녀집단에서 또래지지와 품행행동에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완화는 비행과 위축행동의 보호요인으로 있는데 또래지지가 교사지지보다(S. Ju & Y. Lee, 2012)보호요인으로 영향력이 높았고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완충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와 교사지지의 역할은 차이가 있으므로 건강한 학교의 심리적 환경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건강한 상호관계를 위한 지침들을 배우고 적용하는 내용을 교육과정안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는 충동성이 높고 조절수준은 성인에 비해 미숙하므로 통합적 사회적 지지는 더욱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 있으며 학교에서의 또래와 교사의 지지와 가정의 부모지지를 포괄할 수 있는 접근은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언젠가부터 치유(Healing)라는 단어가 한국사회 전반

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임상군에서조차 치료 장면까지 이어지는 빈도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학교에서의 학생간 폭력 등은 여전히 문제로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또래거부는 학급분위기와 거부아를 제외한 일반그룹에서의 또래 거부행동에 대한 예방과 같은 사회적인 맥락안에서의 접근이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Ellen et al., 2011) 또래와 가족지지는 괴롭힘의 결과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보다 적극적인 학교 중재가 권고되었다(R. Catherine, H. Jenny, K. Emily & S. Stephen, 2011).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으로 소외나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전체 분위기와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 시스템에 기반하여 개인의 위축이나 품행문제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고 나아가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상호간의 존중 등의 학교질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관련 국가사업으로 교육부와 여성부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해 왔던 또래 상담사 사업이 있었고 학급과 학교내 또래간 정서적 지지자를 양성하였고 이는 또래지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정신건강을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는 의학적 모형에서는 임상군을 위한 진단, 치료와 질병의 원인의 발견에 중점을 두게 된다(Y. Kim, 2007). 그런데 이에 정의되지 못한 경미한 경계군이나 일반군에서 일상의 사건에 적응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학업부진 등의 다른 문제로 드러나는 청소년들도 많다. 세계보건기구는 정신건강이 사회경제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정신건강은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 이상의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신건강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삶에서 발생하는 정상적 범위의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으며, 생산적으로 일을 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개인이 속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녕의 상태로(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청소년기 학업성적이 우선시되는 학교환경에서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과 타인에 대한 존중 등의 기본적인 관계질서는 등한시 되기 쉽고 성적여하를 막론하고 스트레스 수준과 언어폭력 등의 공격성이 높아 학교에서의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계기술과 도덕성 함양등의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 지침들이 보다 제자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품행장애는 구속, 약물 사용, 학업적 어려움에 있어 높은 위험요인으로 있으며, 일반적으로 많은 일반적인 치료에 저항하는 지속적인 장애로(B. Lahey, R. Loeber, E. Hart, & P. Frick, 1995) 비행집단속에서 문제행동이 학습되고 강화되는 경우가 많고 선행연구에서 청

소년기에 위험한 결정은 인지적 미숙보다는 친구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고되는 등(Furby & Beyth-Marom, 1992; Gardner & Steinberg, 2005)비행친구는 문제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건강한 또래 집단에서의 지지와 상호작용을 통한 부정적 자동적사고를 완화시키고 타인에 대한 공감, 문제해결능력 등을 높일 수 있는 집단중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축에 있어서는 또래관계 적응에 적절한 자기주장 등의 사회기술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의 내외현화 문제행동은 공병이 많아 개별적인 선별과정을 거쳐 또래 집단 중재를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품행행동과 위축의 유형에 따른 개입방법이 보다 연구되어 질 수 있다고 보여지며 부정적 자동적사고에서 보여지는 반추 등의 몇 가지 전형적인 패턴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안정된 애착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므로(V. Florian, M. Mikulincer, & I. Bucholtz., 1995; S. Kim, 2000) 또래와 부모지지의 상호작용과 자동적 사고의 하위영역에 따른 영향력 등 본 연구에서 보다 다루어지지 못한 내용들은 후속연구에 포함하였다.

REFERENCES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8 and 1991 profile*.
- Argyle, M., Martin, M., & Luo, L. (1994). *Testing for stress and happiness: The role of social and cognitive factors*.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1995: 173-187.
- Asher S. R., & Parker. J. G. (1989). *The significance of peer relationship problems in childhood*. In: Social Competence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Schneider BH, Attili G, Nabel J, Weissberg RP(Eds.), Amsterdam, Kluwer Academic Publishing, 5-23.
- Beck, A. T. (1988). *Cognitive approaches to panic disorder: Theory and therapy*. In S. Rachman, & J.D. Maser(Eds.), *Panic: Psychological perspectives*(pp.91-109).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Beck, A. T., & Clark, D. A. (1997). An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anxiety: Automatic and strate-

- gicprocess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 49-58.
- Beck, A. T., & Emery, G.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Bokhorst, C. C., Sunter, S. R., & Westenberg, P. M. (2010). Social support from parents, friends, classmates, and teach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9 to 18 years: Who is perceived as most supportive? *Social Development*, 19, 417-426.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Catherine, R., Jenny, H., Emily, K., & Stephen, S. (2011). Can social support protect bullied adolescents from adverse outcomes? A prospective study on the effects of bullying on the educational achievement and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at secondary schools in east london. *Journal of Adolescence*, 34, 579-588.
- Cauce, A. M., Mason, C. A., Gonzales, N., & Hiraga, Y. (1994). Adolescent problem behavior: The effect of peers and the moderating role of father absence and the mother child relationship.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6), 723-743.
- Choi, W. S. (2006). Psychophysiological Stress Profile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4(2), 57-62.
- Claes, M., & Simard, R. (1992). Friendship characteristics of delinquent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3(3-4), 287-301.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18(4), 557-570.
- Coie, J., Terry, R., Lenox., Lochman, J., & Hyman, C. (1995). Childhood peer rejection and aggression as predictors of stable patterns of adolescent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697-713.
- Compas, B. E., Orosan, P. G., & Grant, K. E. (1993). Adolescent stress and coping : Implication for psycholog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6, 331-349.
- Conners C.K.(1997). *Conners Rating Scales-Revised(CRS-R) Technical Manual*. New York: Multo Health System.
- Diener, E., & Seligman, E. P. (2002). Very happy peopl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13(1), 81-84.
- Dodge, K. A., & Somberg, D. R. (1987). Hostile attributional biases among aggressive boys are exacerbated under conditions of threats to the self. *Child Development*, 58, 213-224.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and socia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Child Delopment*, 60, 1412-1423.
- Dumont, M., & Provost, M. A.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s, coping strategies, self 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3), 343-363.
- Eirini, F., & Constantina, P. (2014). Negative automatic thoughts and emotional and behavioural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19(1), 46-51.
- Ellen P, Marianne R. W., Antonius H. N., & Carolina W. (2011). Peer rejection and HPA activity in middle childhood: friendship makes a difference. *Child Development*, 82(6), 1906-1920.
- Feng, K., & Xuqun, Y. (2013). Loneliness and self-esteem as mediators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late adolesc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0(1), 271-279.
- Florian, V., Miklulincer, M., & Bucholtz, I. (1995). Effects of Adult attachment style on the perception and search for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Psychology*, 129(6), 665-676.
- Freud, S. (1958). *The dynamics of transference*.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12, 98-108. London : Hogarth.
- Furby, L., & Beyth-Marom, R. (1992). Risk taking in adolescence: A decision-making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12(1), 1-4.
- Gardner, M., & Steinberg, L. (2005). Peer influence on risk taking, risk preference, and risky decision making in adolescence and adulthood: an experiment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41(4), 625-5.
- Gillmore, M., Hawkins, J., Day, L., & Catalano, R. (1992). Friendship and deviance: New evidence on an old controversy.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 12(1), 80.
- Giordano, P., Cernkovich, S., & Pugh, M. (1986). Friendships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70-1202.
- Graham, S., & Juvonen, J. (1998). Self blame and peer victimization in middle school: An attribut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587-599.
- Ha, E. H. (2006). Broadband and Narrowband cognitive content specificity of the adolescent's negative automatic though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2), 429-447.
- Han Hyun A, Doh Hyun S. (2008). The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s, Ego-Resilience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Korea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9(1), 87-101.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ocial support scale for children*.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 Hartup, W. W. (1989). Social relation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American Psychologist*, 44, 120-126.
- Jeffrey, G., Parker, Steven, R., & Ashe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Jhin, H. K., Kim, K. B., & Lee, J. I. (1998). A comparative study of parental rearing behaviors between conduct disorder and normal adolescents. *Korean J Child & Adol Psychiatr*, 9(1), 67-81.
- John, W. S. (2004). *Adolescence. 9th ed.* McGraw Hill korea. Inc.
- Jung, S. H. (2013).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disruptive impulse control and conduct disorders, neurocognitive disorder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 122-123.
- Ju, S. Y., & Lee, Y. H. (2012). The roles of student-teacher attachment between latent delinquency, negative automatic thought and resilience in adolescen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9(8), 103-142.
- Kataoka S. H., Zima B. T., Dupre D. A, Moreno K. A., Yang X, & McCracken J. T. (2001). Mental health problems and service use among female juvenile offenders: the irrelationship to criminal histo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549-555.
- Kaplan, H., Sadock. (1988). *Clinical psychiatry*. Baltimore, MD: Williams & Wilkins.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 Jason Aronsson.
- Kim, K. H. & Lee, H. J. (2002). Self identity in conduct disordered and compariso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5(4), 1-23.
- Kim, H. S. (2005). *The influences of adolescent's attachment and ego resilience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J. M. (2010). *The effect of insecure attachment on psychological well be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Kim, J. M. (2008). The mediating effect of automatic thoughts in the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5(6), 197-224.
- Kim, K. Y. & Kim, K. Y. (2005) Variables related to children's withdrawal and aggression. *Korea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6(6), 247-266.
- Kim, S. S. (2013). The Influence of family relationship perceived by adolescents upon depression / anxiety, withdrawn behavior, and aggression :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support and friend support,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1(2), 343-364.
- Kim, S. J. (2000). *The study on social support style and stress coping style according to adolescent's attachment level*.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Y. J. (2007). Korean children's mental health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Forum*, 61-72.
- Klein, M. (1932). *The Psychoanalysis of Children*. New York : Grove Press.
- Kupersmidt, J. B. & Coie, J. D.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s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Kwon, S., & Oei, T. S. (2007). Evaluation of the integrated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and its specificity in a migrant population. *Depression and Anxiety*, 24, 112-123.
- La Greca, A. M., & Lopez, N. (1998).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Linkages with peer relations

- and friendship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6, 83-94.
- Lahey B. B., Lober. R., Hart. E. L., & Frick, P. J. (1995). Four year longitudinal study of conduct disorder in boys: Patterns and predictors of persistence. *J Abnorm Psychol*, 104(1), 83-93.
- Lee H. G., & Kim H. W.(2011). Gender Differences on the characteristics and affecting factors of peer relation problems among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6(1), 43-68.
- Lee, J. Y. (2009).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and peer relationships on social withdrawal of adolescence mediated by automatic thoughts*.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M. R. (2001).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 System to influence on the High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 thesis. Taegu University, Kungbuk, Korea
- Lee, Y. H., & Lim, J. H. (2011). Parents and peer attachment in relation to automatic thought of adolescent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4), 35-48. 263-269.
- Lee, Y. H., & Lim, J. H. (2011). Parents and peer attachment in relation to automatic thought of adolescents. *korea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4), 35-48.
- Leung, P. W. L., & Wong, M. M. T. (1998). Can cognitive distortions differentiate between internalising an externalising proble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9(2), 263-269.
- Melissa, K. H., & Dorothy, L. E. (2007)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Journal Youth Adolescence* 36, 984-994.
- Misra, R., Crist, M., & Burant, C. J. (2003). Relationships among the stress,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ors and reactions to stressor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0(2), 137-157.
- Minna, R., Tiina, L., Mauri, M., Mirhami, P., & Riittakerttu, K. H. (2010). Comorbidity between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ur in middle adolescence: The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Nord J Psychiatry*, 64(3), 164 -171.
- Moffitt, T. E. (1990). Juvenile delinquency and attention-deficit disorder: Developmental trajectories from 3 to 15. *Child Development*, 62, 893-910.
- Moon, K. J., Oh, K. J., & Moon. H. S. (2002). Validation study of korean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955-963.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homepage on the Internet](2012). The research of internet addiction 2012(in Korean). Seoul: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Available from: <http://www.nia.or.kr/>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homepage on the Internet] (2011). The research of internet addiction 2011 (in Korean). Seoul: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Available from: <https://schoolhealth.kedi.re.kr/>
- Nolten, P. (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WI.
- Oei, T. S., Hibberd, E., & O'Brien, A. J. (2005). Study of the integrated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among lati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39, 932-939.
- Oh. K. J., Kim. E. Y. Do. R. M., & Eoh. Y. K. (2005). Poverty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exploration of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1), 53-71.
- Oh, K. J., Lee, H. Y., Hong, K. E. & Ha, Y. H. (2001). *Korean Youth Self Report; K-YSR*. Institute of Central Aptitude, Seoul.
- Oh, W., Rubin, K., Bowker, J., Booth-LaForce, C., Rose-Krasnor, L., & Laursen, B. (2008).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middle childhood to early-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553-566.
- Olweus, D. (1997). Bully/victim problems in school: knowledge base and an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 *The Irish Journal of Psychology*, 18(2), 170-190.
- Park, J. N.,& Choi, H. R. (2005). Perceived adolescents' attachment to mother/father automatic thoughts and agg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1), 249-264.
- Park, S. Y., Lee, G. S. (2000). A Study on the perceived stress and social supports of adolescent. *Journal of*

-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9), 93-106.
- Park, Y. J., Yum, S. H., & Hong, K. J. (2007).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tyles and working alliance of adolescent: Testing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Education Research* 30, 89-107.
- Parker J,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07-814.
- Robert, S. F. (2008). *Development across the life span*. 5th ed. Pearson education. Inc.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 Robert, V. (2003). Psychopathology and delinquency in adolescents: A descriptive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 277-318.
- Ronan, K. R., & Kendall, P. C. (1997). Self talk in distressed youth: States of mind and content specific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6, 330-337.
- Schniering C.A., & Rapee R. M. (20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the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Behac Res Ther*, 40(9), 1091-1109.
- Seoul Mental Health Statistics [homepage on the Internet] (2013). Korean youth heal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Seoul: Seoul Mental Health Statistics. Available from:
<http://seoulmentalhealth.kr/>
- Shari, M. J., John, D. C., Anne, M. G., & Karen, B. (2002). Peer rejection and aggression and early starter models of conduct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3), 217-230.
- Ulmann C. (1957). Teachers, peers, and test as predictors of adjustment. *J of Edu Psychol*, 48, 257-267.
- Varni, J. W., Rubenfeld, L. A., Talbot, D., & Setoguchi, Y. (1989). Determinants of self esteem in children with congenital/Acquired limb deficiencies. *Journal of Developmental & Behavioral Pediatrics*, 10(1), 13-16.
- Vernberg, E. M., Abwender, D. A., Ewell, K. K., & Beery, S. H. (1992). Social anxiety and peer relationships in early adolescence;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189-196.
- Vogel, D. L., & Wei, M. (2005). Adult attachment and help seeking intent: The mediating roles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3), 347-357.
- Weishaar, M. E. (2007). Aaron T. Beck. (Kwon, S. M. translation). Seoul : Hakjisa.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Strengthening mental health promotion*(fact sheet no. 220).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Yang, D .K., & Lim, Y. S.(1998).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er on the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Social Issues*, 4(1), 55-74.

- 접수 일 : 2014년 09월 12일
- 심사 일 : 2014년 10월 22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03일